



서윤아, 미안해

울산초 6-6 박민서

두근두근 새 학년이 시작됐다. 이제는 익숙한 등굣길을 걸어가
는 내 발걸음이 가볍다. 방학이 시작되기 전, 무사히 5학년을 마
친 나는 6학년 반 편성표를 친구들과 바꾸어 보고 속으로 기쁨의
함성을 질렀다. 친구들의 반 편성표에는 내 것과 똑같은 글자 ‘다’
가 적혀 있었다. 그 순간, 그 글자 ‘다’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.
그만큼 ‘다’라는 글자가 반가웠던 적이 없다. 그렇게 돼서 나는 내
가장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었다. 창문 안으로 들여다본 우
리 반은 5학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. 딱 한 가지 다른 점은 이
시간에 아이들이 꽤 있고, 다 앉아 책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. 하지
만 내 5년 학교생활로 경험해 본 결과, 내일이면 거의 비어 있을
것이다.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.
어디 앉을지 고민하면서 친구들 얼굴을 힐끗 보니 내 친구들도 몇
명 있었다. 그 옆자리에 가서 인기척을 내니 내 친구가 고개를 들
어 나를 바라보았다.

“안녕.”

친구가 모깃소리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. 나도 모깃소리로 대
답을 해주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교실로 들어

왔다. 자리가 거의 다 차고 교실이 살짝 어수선했을 때쯤, 문이 열리면서 5학년 때 내 친구가 들어왔다. 그 친구의 이름은 한서윤. 서윤이가 지나갈 때 손을 흔들었지만 못 봤는지 그냥 대꾸를 안한 건지 늦게 와서 부끄러운지 그냥 지나쳤다. 조금 민망하고 화가 났지만 서윤이는 원래 좀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인 애여서 그랬던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. 앞문이 열리면서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. 나는 자연스레 그 생각은 버리고 선생님에게 귀를 기울였다. 수업이 끝났다는 종이 울리고 나자, 교실 안과 밖이 소란스러워졌다. 나는 밖으로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다. 내 친구들이 이 교실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복도가 아닌 교실 안 친구들 자리로 갔다.

“민서야, 근데 넌 5학년 때 반 친구 여기 없어?”

“아, 내 친구는 저기 있어. 근데 왜 자리에 앉아만 있지? 내가 한번 가 볼까?”

5학년 때 친구 서윤이는 반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. 내 친구들을 소개시켜줘야 하나? 항상 이런 자리가 어렵다. 서로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 낀 그 둘을 전부 다 아는 애, 나는 그 둘을 전부 다 아는 애에 속한다. 이렇게 되면 서로 소개시켜서 모두 친구가 되거나 내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서로 맘 상하지 않게 같이 놀아야 된다.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첫 번째가 쉬운 것도 알고 있지만 웬지 두 번째로 하고 싶다. 내가 서윤이를 소개해 줘도 성격이 정반대로 서로 안 놀 것 같은데... 그런 생각이 들자 내 선택은 더욱 확고해졌다. 내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쩔 수 없다. 같이 안 놀 건데

소개시켜주는 것도 어색하고, 그렇게 나는 이 둘 사이를 이리저리 옮겨 가며 놀았다.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서윤이가 아닌 친구들이 더 많은 쪽으로 기울어졌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윤이와 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엔 서로 봐도 인사도 잘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. 서윤이는 나에게 화가 난 것 같았다. 그렇지만 나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. 만약 서윤이가 성격을 조금만 바꿨으면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.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왠지 모를 죄책감도 생겨났다.

“민서야, 엄마랑 이야기 좀 해보자.”

“네? 왜요?”

“너 요즘 서윤이랑 싸웠니? 5학년 때는 둘이 꼭 붙어 다니다가 이제는 같이 있는 모습이 거의 안 보이네. 따돌리는 건 아니지?”

어느 날, 엄마의 한마디 말 때문에 내 죄책감이 극에 달했다. ‘따돌림’.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서윤이를 따돌리고 있는 것 같다.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? 그동안 서윤이의 마음 말고 내 마음만 생각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졌다. 머리가 지끈지끈거렸다. 복잡하게 얽혀버린 나와 서윤이의 관계를 내가 먼저 풀어보려고 노력해야겠다.

다음 날 아침, 나는 어제 밤까지 정성 들여 준비한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학교로 갔다. 반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이 서랍에 그 편지와 선물을 넣고 내 자리로 가 앉았다. 수업을 듣는 동안 수업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, 쉬는 시간에는 서윤이만 계속 훑어져라 보았다. 너무 불안하고 떨려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.

집에 도착한 후, 학원 때문에 전원을 켜던 폰을 켜고 나자 보이는 메시지가 내 가슴을 두방망이질 치게 만들었다. 서윤이가 내 편지와 선물을 봤나 보다. 떨리는 마음으로 앱을 여니 서윤이의 답장이 보였다. 서윤이는 내게 엄청 화가 났었지만, 이번만 용서해 주겠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. 그 용서라는 글자를 보고 고마움이 솟구쳤다. 나도 내 채팅창에 글자를 쳤다.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담아 푹푹 눌렀다.

서윤아, 고마워. 그리고 미안해.

